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30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틀째인 30일 무안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나건호 기자

‘슬픔에 빠진’ 광주·전남... 희생자 추모 발길 이어져

제주항공 참사 무안·광주 분향소 추모객, 희생자 명복 빌며 ‘눈물’ 친구 등 지인 잃은 시민도 많아 대규모 참사에 트라우마 우려도 “우울·불안 반복되면 상담 필요”

무안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전남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희생자들의 명복과 평안을 빌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참사가 지역민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오전 무안 양학리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분향소 중앙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위패와 국화가 놓였고, 주변으로는 각계 단체와 기관에서 보내온 근조화환이 들어섰다. 분향소 내부는 적막감 속에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분향소가 마련되자마자 희생자들의 지인을 비롯해 고인의 낯을 기리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기 시작하며 추모객들의 애도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의 위패 앞에 국화를 헌화하고 향을 피운 뒤 묵념하며 고인의 평안을 빌었다.

일부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비통한 표정의 추모객들은 새해를 앞두고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가 여전히 믿기지 않다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

동연(19)씨는 “사고 당시 여객기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했을 비극적인 일이며, 광주·전남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큰 아픔이다”면서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고로 한순간에 동료들을 잃은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무안교육지원청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처음에는 구조자도 있고, 사망자 수도 적게 집계돼 뉴스속에서 본 참혹한 사고 현장에 비하면 피해가 적은 듯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초기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이 확인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 손꼽을 만한 비극이다. 도교육청 내에서도 5명의 희생자가 나와 모두 큰 슬픔에 잠겼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희생자 중 한 분은 내년 1월1일

자로 같은 부서로 발령이 예정돼 있었는데, 단 며칠을 앞두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 마음이 더욱 아프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객들로 가득 찼다. 광주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179명의 희생자 중 81명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추모를 마친 시민들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분향소에 놓인 위패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빠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지민(23)씨는 “희생자 중 지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을 포함해 고향인 호남 사람들 모두가 애용하던 공항에서 큰 참사가 발생해 남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며 “연말에 믿을 수 없는 비보가 이어지고 있어 마음이 너무 좋지 않고,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져 광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로 친구를 잃은 B(서강중 2

년)양도 “텔레비전에서 사고 소식과 경고를 지켜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어제(29일) 오후에야 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현실감이 없어 믿기지 않다가 오늘 학교에 가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됐다. 너무 슬프고 마음이 무너질 뿐”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참사가 지역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명권 국립트라우마센터장은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전체와 지역사회 분위기가 침울해지고, 개개인마다 오랜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적으로 심리치유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들이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번 참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우울·불안을 느끼는 지역민들은 보건소나 관련센터 등을 찾아 심리상담과 치유를 받아보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사고원인 규명 조사 본격화... 블랙박스는 손상

경찰 “DNA 신원 확인후 가족 인도” 기록장치 일부 훼손... 美 보낼 수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망자 중 78%의 신원이 확인되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지만 여객기 충돌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블랙박스가 일부 손상돼 미국으로 보내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원호 전남경찰 수사본부장은 30일 오후 무안공항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족 DNA 채취가 늦어 이날 오전 11시 헬기를 통해 전달됐고 늦어도 31일까지는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들의 훼손 정도가 심해 DNA 검사를 수백번 진행해야 하며 검체를 채취하고 배양하는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모든 시신의 DNA 검사가 끝난 뒤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신 인도까지는 대략 열흘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사본부에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5구의 시신에 대해 검안을 마쳤으며 유족들에게 이들 시신을 인도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기준 사망자 179명 중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141명이다. 수사본부 측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 38명에 대해 DNA 검사와 지문 등을 통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모두 수거해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는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로 음성기록장치는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를 포함해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조종실 내 각종 경고음 등을 저장하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행기록장치는 사고 항공기의 비행 경로와 각 장치 작동 상태를 기록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2시간 분량의 데이터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기록한다. 즉 엔진 정지 전 마지막 2시간의 현장을 내다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음성기록장치의 경우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제거 후 바로 분석할 수 있는 반면, 비행기록장치는 연결부가 일부 훼손된 채로 수거된 것으로 전해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보내 조사를 맡길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블랙박스 해독 작업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조사당국은 최대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미국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며 항공기 결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엔진 제작사인 CFMI의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도 넘은 악플·미확인 뉴스... 유가족 ‘2차 피해’

SNS 등 잇단 지역비하 게시물 지방공항·희생자 등 우롱 ‘공분’ ‘충분히 고통... 폄훼 등 멈춰야’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지난 29일 오전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안공항을 둘러싼 미확인 뉴스와 지역비하 악성 게시물 등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현재 참사 소식을 전하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에는 사고 발생 장소인 무안공항에 주목해 지역을 비하하는 네티즌의 댓글이 지속해서 게시되고 있다.

또 ‘무안공항 활주로 인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짧은 활주로가 사고를 키웠다’, ‘갯벌과 철새 서식지로 인해 조류충돌 발생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논리에 의해 건설됐다’ 등 미확인 보도도 계속

되고 있다.

특히 ‘그러게 왜 지방공항을 이용했느냐’, ‘저가항공을 탄 게 잘못’, ‘(보상금에)유가족들만 황제네요’ 등의 악성 댓글은 가뜰이나 비탄에 잠긴 유가족과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고 있다.

광주시민 A씨는 “여객기 참사 이후 쏟아지는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며 “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제주항공의 책임은 제외되는지, 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지역민들이 또 다시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다른 시민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지방 국제공항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 공항에 불과할지 몰라도, 지방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외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공항이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

으나, 제주항공 여객기의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것은 사실상 만큼 무안공항 참사가 아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B씨는 “경제 논리를 떠나 무안공항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인천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역민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준 장소다”며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나광국 전남도의회 무안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탑승객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 부적합 등은 확인되지 않은 억측인 만큼, 이번 사고를 둘러싼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광주전남기자협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회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협회는 이날 애도문을 통해 “희생자 대부분이 광주전남 지역민이다. 또 기자 동

료 한 명도 앓아갔다”며 “유가족은 물론 동료를 잃은 회원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고 구조적 문제를 짚어 향후 추가 참사를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희생자에 대한 예우임을

다시 한번 새긴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도, 선정적인 제목, 지나친 취재 경쟁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서 똑똑히 봤다”며 “지열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되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키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정성현 기자